

장사일록(長沙日錄)

서지정보

서명	장사일록(長沙日錄)
저자(성명/자/호)	신홍망(申弘望), 망구(望久), 고송(孤松)
판사항	筆寫本
책크기	34.5×27.0
발행자	
발행년	
주제	사건건문일기
작성시기	미상
소장처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장사일록(長沙日錄)』은 신홍망(申弘望 ; 1600~1673)이 이시매(李時樑)를 모함했다는 일로 인하여 평해(平海)로 귀향을 가게 된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임진년(1652년) 9월 당시 지평으로 있던 그는 이시매의 사직상소에 성현을 모욕하는 말을 썼다고 판단하여 이시매를 체직하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리하여 신홍망을 두둔하는 쪽과 이시매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린 정국은 결국 신홍망이 남을 비방했다는 죄가 더 크게 인정되어 11월 3일 평해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신홍망은 11월 18일 평해에 도착한지 1주일 만에 해배(解配)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사일록』은 이러한 사건발생의 모든 과정과 유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기록한 날짜는 12월 21로 되어 있으며, 후손들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기 위해 기록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 자신의 호가 곡정(鵠汀)·죽창(竹窓)이었다가 다시 고송(孤松)으로 바꾸었음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부분에는 손자 친구가 쓴 행장이 부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행장은 신홍망의 문집인 『고송선생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쓴 행장만이 실려져 있다.

문집의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서 조부의 문집을 편집하면서 자신의 행장은 일부러 빼듯하다. 신흥망의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아주(鵝州)이다. 1639년 별시문과에 급제, 주서(注書)를 거쳐 1646년 정언이 되었고, 이어 사헌부에 재직중 도승지 이시매(李時樑)의 탄핵으로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1652년 지평이 되었을 때 호당(護黨)의 죄로 인하여 평해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1659년 풍기군수가 되었다.